

가채점 성적 좋으면 정시 선택이 유리

■수능 이후 대학입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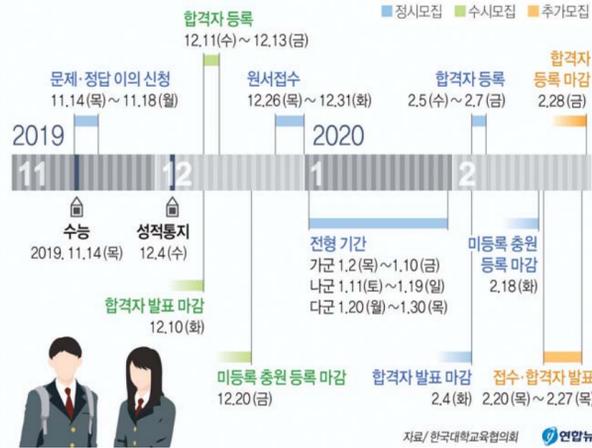
예상보다 결과 낮을땐 수시 지원 대학들 영역별 반영 비율 꼼꼼히 광주시교육청 19일 대입 설명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끝나면서 이제 대학 입시가 본격화됐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날 공개된 수능 영역별 정답을 확인, 가채점을 진행해 본인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현장 교사와 입시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상의 대입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적에 따라 수시 논술·면접 고사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전략 수립의 핵심은 가채점=수능 이후 당장 16일부터 수시모집 전형이 시작된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수능 후에도 숨 돌릴 틈 없이 논술시험과 면접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채점 결과에 따라 수시와 정시 선택이 갈리게 된다. 가채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꼼꼼히 하는 게 좋다.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기대보다 낮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 대학별 고

2020학년도 수능 이후 대입 주요 일정



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성적이 기대치를 웃도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정시모집을 적극 공략하고, 정시 합격 가능 대학에 수시를 지원했다면 대학별 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시를 지원할 경우 자

신이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주요 대학의 경우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분석,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반영 유형·유·불리 분석=가채점 이후 자신의 유·불리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좋다. 국어·수학·영어·탐구 등 4개 영역

을 전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3개 영역에 1개 선택,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반영 등 대학별로 다르다. 수능 표준점수를 반영하거나 백분위·등급을 반영하는 곳도 있어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특정 영역 비중이 높을수록 반영 방식이 달라 이를 파악해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하고, 불리한 조합은 걸러야 한다. 수능 성적 유·불리 분석이 끝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 가상의 지원전략 파일을 만들어 정리하면 효과적이다. 국어와 수학 성적이 우수하면 해당 영역 비중이 높은 대학을 정리해 두고, 수능 점수 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른 요소도 함께 적어 숙지하라는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가채점을 통한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별 전형방법을 적용해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와 "실제점 결과 분석 및 정시 지원 설명회"를 각각 오는 19일과 12월 11일 진행한다. 장소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층 강당이며, 시간은 오후 3시부터다. 12월 16~20일에는 시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정시 1대 1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6 달뜨기 19:36
해질 17:27 달지기 09:24

아침 기온 쌀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 지역 | 구름많음 | 날씨 | 기온 |
|----|------|-------|----------------|
| 광주 | 구름많음 | 2/17 | 보성 구름많음 -2/16 |
| 목포 | 구름많음 | 5/16 | 순천 구름많음 1/17 |
| 여수 | 구름많음 | 5/16 | 영광 구름많음 2/17 |
| 나주 | 구름많음 | -1/16 | 진도 구름많음 5/18 |
| 완도 | 구름많음 | 5/17 | 진주 차차흐려져 3/17 |
| 구례 | 구름많음 | -3/17 | 군산 차차흐려져 4/17 |
| 강진 | 구름많음 | 0/18 | 남원 구름많음 -2/16 |
| 해남 | 구름많음 | 0/18 | 흑산도 구름많음 11/19 |
| 장성 | 구름많음 | -1/17 | |

◇바다 날씨

| 해역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남서~서 | 0.5~1.0 | 남서~서 | 0.5~1.0 | |
|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1.0~2.0 | 남서~서 | 1.0~2.0 | |
| 남해 앞바다 | 남서~서 | 0.5~1.0 | 남서~서 | 0.5~1.0 |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남서~서 | 1.0~2.0 | 남서~서 | 0.5~1.5 |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남서~서 | 1.0~2.0 | 남서~서 | 1.0~2.0 | |

◇물때

| 목포 | 간조 | | 만조 | |
|----|---|--------------------------------------|-----------------------|-------|
| | 08:41 | 03:27 | 21:17 | 16:09 |
| 여수 | 04:05 <td>10:40 <td>16:39 <td>22:39 </td></td></td> | 10:40 <td>16:39 <td>22:39 </td></td> | 16:39 <td>22:39 </td> | 22:39 |

◇주간 날씨

| 날씨 | 16(토) | 17(일) | 18(월) | 19(화) | 20(수) | 21(목) | 22(금) |
|----|-------|-------|-------|-------|-------|-------|-------|
| 구름 | ☁ | ☁ | ☁ | ☁ | ☁ | ☁ | ☁ |
| 기온 | 9/19 | 11/20 | 12/14 | 5/9 | 3/11 | 2/14 | 5/16 |

“고교 교육과정 내서 일관된 출제 기조 유지 EBS 연계 70% 수준...초고난도 문항 없애”

심봉섭 수능 출제위원장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심봉섭(사진)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는 14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며 “학생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수능 시작 시각인 이날 오전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 방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월에 평가원에서 시행 세부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수능도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했다”면서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국어와 영어의 경우, 정해진 출제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재와 지문, 자료를 활용했고 나머지 영역은 개별교과와 특성을 고려하면서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되도록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 출제로 국어 문제의 정답을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단이 지난 6월과 9월 9월의 평가를 거쳐서 출제할 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며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와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어와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과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모든 학생이 유불리를 느끼지 않을 만한 소재 등을 찾아서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수능에서는 배경지식 유무에 따라 문제 풀이에 유불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어 지난해보다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

올해 국어 영역은 ‘불수능’을 유발할 만큼 어려웠던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게 광주 교사들과 입시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독서 영역의 난도가 높게 유지돼 수험생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독서영역은 지난해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어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독서영역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가 출제돼 체감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선의 광주여고 교사는 “킬러문항으로 꼽히는 40번의 경우 제시된 예시를 보고 BIS 비율을 직접 계산해야 풀 수 있는 등 세밀한 판단을 요구해 체감난도를 높인 듯 하다”며 “특히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마지막 사회 지문은 경제 지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묻는 등 까다로운 문항으로 출제된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문 내에 BIS 자기자본비율 개념 설명이 충분히 담겨 있어 사전지식이 없으면 못 푸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학 영역에서는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갈래 복합 문항이 출제됐으며, 고전 시가인 신개영의 ‘월선현십육경’과 고전 수필인 권근의 ‘어촌기’가 세트 문항으로 나왔다.

민어송 빛어울고 교사는 “독서와 문학 영역은 전반적으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높아 수험생들이 친숙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작문 10번에서 고쳐 쓰기를 두 번하는 문항이 나와 다소 낯선 부분도 있었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풀기에 평이했다”고 말했다.

영역별 출제 난이도 살펴보니

수학 변별력 낮아져 중하위권 난도 높아

광주 교사들과 입시전문가들은 수학 영역에 대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수학 기형과 나형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최고난도 문항과 일반 문항의 난이도 차이가 줄면서 최상위권 수험생과 중상위권 응시생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달랐을 것이라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로 이과생이 보는 수학(가형)은 지난해 수능 때와 각 교과간 문항수가 동일하게 분배됐고, 난이도 역시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를 만한 문항으로는 21·29·30번이 꼽혔다. 이 문항은 여전히 어려운 문항이지만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조대여고 교사는 “킬러문항인 30번 문항도 지난 9월 모의평가 때와 같이 단순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출제됐다”며 “다만 최고난도가 아닌 고난도 문항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출제돼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학(나형)은 전년 수능과 유사하고,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평이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제로는 21·28·30번이 꼽혔다.

박영광 승덕고 교사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지만 2·3등급 수준의 수험생에게는 순간 어렵게 느껴지거나 실수할 수 있는 문항이 2·3개 있었다”며 “해당 문항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등급 컷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영어 문항수·배점 등 6·9월 모평과 유사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교재와의 직·간접 연계율이 70% 이상으로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도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광주지역 교사들과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고, 유형별 문항수와 배점 등도 지난해 수능과 올해 치러진 6·9월 모평과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문·사회·자연·예술·과학 등 내용 영역별로 소재가 균형 있게 활용돼 수험생의 학습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교사들은 매년 고난도로 출제됐던 빈칸 추론 문항 역시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어법성 판단 문항에서는 ‘주어-동사 수 일치’, ‘접속사 as의 쓰임’, ‘관계대명사’, ‘현재 분사-과거분사’ 등 자주 출제되는 문법 사항이 반복출제됐다고 설명했다. 간접쓰기에 해당하는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 ‘주어진 문장 넣기(문장 삽입) 문항 중 37·39번 비연계 문항이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확한 해석능력이 부족하거나 전체적인 글의 틀을 잡고 순서를 나타내는 단서들을 파악하는 훈련이 부족했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37번 문항(B) 문단의 ‘this’가 지칭하는 내용을 정확히 추론하기 어려웠던 탓에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창욱 대동고 교사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하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